

쓰레기와의 전쟁... 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률 높인다

2021년부터 요식업 종이컵 사용 금지...테이크아웃 뎀 추가 비용 2022년부터 포장음식 손가락·숙박업소 샴푸 무상제공 불가

오는 2021년부터는 커피숍,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16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선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

가로 내야 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손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손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또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일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환경부 재활용체계 개선...페트병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 내년부터 공동·단독주택에 분리수거함...수입 페트병 대체 기대

정부가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가능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을 위해 무색 페트병과 먹는 샘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 수거하는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범사업지역이 확정되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아파트·단독 주택·거점 수거 3가지로 분류해 시범 사업 지역을 선정한 뒤 공동 주택 페트병 별도 분리 수거함 추가 설치, 단독 주택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등의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다. 시범 사업을 거쳐 보완·개선 사항을 확인해 내년 7월부터 공동 주택 분리배출·수거가 활성화된 지역을 우선으로, 2021년

에는 전국 공동·단독 주택으로 페트병 분리배출을 확대한다. 이번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 사업으로 정부는 국내 페트병 중 고품질 원료로 재생되는 양을 지난해 2만 9000t에서 2022년 10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선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업체에 지급하는 선별 지원금도 선별품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선별업체 등급 결과는 매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연간 2만 2000t의 고품질 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재활용 유망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것



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국 이산화탄소 비상

안면도 지난해 415.2ppm...전 세계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온실가스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증가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온실가스 연보를 통해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07.8ppm으로 전년(405.5ppm) 대비 2.3ppm 증가했다. 작년 증가량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량(2.26ppm/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평균 농도는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 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2015년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선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연보에 인용된 미국해양대기청(NOAA) 수치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복사강제력(radiative forcing: 화학물질이 대기 온도를 높이는 정도)이 1990년 이후 43% 증가했고,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는 80%를 차지했다. WMO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기원을 추적한 결과 탄소 동위원소(14C)가 포함되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어 화석연료나 자동차 등 인간 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탄소 동위원소(14C)는 화석연료의 연소와 천연 공 급원 배출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약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농도는 감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각국에 협약 실천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 결과, 2018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5.2ppm으로 전년(412.2ppm) 대비 3.0ppm 증가했고 전 지구 평균보다 높게 관측됐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전 지구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시바빠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산불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과 산불진화대원들이 운동장 산불감시초소에서 등장폼 등 산불진화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지구서 사라져가는 기린·도마뱀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47종 등재...수출입시 허가 필요

환경부는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26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새로 등재되고,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물은 도마뱀 6종과 곤충 3종이 부속서 I에 개체 수 감소로 감시가 필요한 북부 기린, 청상아리, 수구리와 전종, 해삼류 등 22종이 낮은 등급인 부속서 II에 등재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은 수입 때 제한

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작은발톱수달,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됐던 8종은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26일부터는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속서에 새로 등재된 종 중에는 토케이도마뱀붙이 등 그동안 비교적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했던 도마뱀 일부 종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가공품을 포함해 수출입, 반출입시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 거래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말로만 듣던 담비 다도해 해상공원에서 포획

첫 실체 확인...삽 등 멸종위기종 서식 생태계 건강함 증명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연이어 카메라에 포착되며 생태계의 건강함을 드러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한 포유류 모니터링 과정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담비와

삽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담비는 그동안 문헌으로만 남아있다가 처음으로 실체가 확인돼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담비는 잡식으로 열매부터 조류, 소형 포유류까지 먹이 섭식의 폭이 넓기 때

문에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이다. 이규성 해양자연자원과장은 "담비, 삽과 같은 산림생태계 최상위 포식종 서식확인인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멸종위기야생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내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